중경(重慶) 임시정부까지 찾아간 학도병들 중 상당수가
미국 OSS와 광복군의 공동작전인 '독수리작전(The Eagle Project)'에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백범 김구 선생은 중경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광복군은 중국대륙 각처에서 중국군과 함께 활동한 것을 비롯, 1943년 8월 인도 · 미얀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1945년 7월까지 2년여동안 영국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Office of Stragegic Service)와 연합하여 국내진입작전인 '독수리작전'을 추진한다. 독수리작전은 일본에 점령당한 한국 본토에 비밀리에 침투하여 첩보활동, 정보송신, 유격대조직 및 군사시설 파괴공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광복군과 미군은 작전 수행에 가장 적합한 대원을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출발한지 몇 개월밖에 안 되므로 비교적 상세히 국내 사정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일본군 출신이므로 일본군의 사정에 정통하며 또한 대학까지 진학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작전에 지원한 학도병들은 엄격한 OSS 훈련을 마치고 비행기나 잠수정을 이용해 국내에 침투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선언으로 작전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중국 서안(西安)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서 국내진입작전을 합의한 미국 OSS 책임자 도노반(William J. Donovan)과 백범김구 선생(1945.8)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멋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나의 소원〉 중에서

백범김구기념관

발행 백범김구기념관 **기획** 박희명, 이홍구, 김선(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Tel. 02·799·3433 Fax. 02·718·1311 www.kimkoomuseum.org **디자인** art publication design GOGH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백범김구기념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연극으로 만나는 백범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의 국내 구국활동

1896년, 스물한살, 치하포 의거

김구 선생은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조선인으로 변장한 일본군을 발견하자,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한 원수를 갚고 나라의 수치를 씻는다는 신념으로 그를 처단하였다. 이후 체포되어 인천감리서에 수감된 후에도 일본 관리에게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의연한 면모를 잃지 않았다.
한편 옥중에서 다른 죄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학문을 접하면서 김구 선생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할 일은 일본인 몇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로다."

1907년, 서른두살, 신민회 활동

김구 선생은 황해도 여러지역에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등회와 순회강연회를 여는 등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펼쳤다. 1907년에는 항일민족단체인 신민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신민회는 안창호의 발의로 결성된 비밀결사로 국내에서 다양한 구국계몽운동을 펼치는 한편,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1911년, 서른여섯살, 옥중생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김구 선생은 신민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지만, 감옥 안에서 오히려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다. 그 결심의 표시로, 일제의 호적에서 이탈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구(龜)'에서 '구(九)'로 바꾸고 호를 '백정(白丁)과 범부(凡夫)도 애국심이 자기만 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백범(白凡)'이라 지었다.

"우리도 어느 때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의 뜰도 쓸고, 창호(窓戶)도 닦는 문지기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1943년, 조선총독은 '조선인학도병특별지원병령'을 선포하다.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는 조선의 지식인들!

최남선,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學徒여 聖戰에 나서라
보람잇게죽자
臨戰無退 空論無用
每日新報

청년학도 제군! 역사 있은 이래의 성전인 금번의 대동아 전쟁은 지금 바야흐로 결전단계에 들어가서 마침내 우리 청년학도들의 출진을 요망하게 된 것이다. 청년다운 정열과 학도로서의 예지를 쏟아서 우리들이 독특한 공헌을 이 세기적 성업에 이바지하게 됨은 실로 남자로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감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략) … 제군! 대동아의 성전은 이름 비록 동아(東亞)이지마는 이는 실로 신시대, 신문화의 창조운동이며 세계 역사의 개조이다. 바라건대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여 부여된 광명의 이 기회에 분발, 용약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매일신보》, 1943년 11월 20일

香山光郎, 〈조선의 학도여〉

그대는 벌써 지원하였는가 특별지원병을
내일 지원하라는가 특별지원병을

공부야 언제 못하랴
다른 일이야 잇다가도 하지마는
전쟁은 당장이로세
만사는 승리를 엇은 다음날 일

승패의 결정은 즉금으로부터
시각이 밧븐지라 학교도 쉬네
한사람도 아쉬운지라
그대로 부르시네

일억이 모조리 전투배치에 서랍시는
오늘

그대는 벌써 뜻이 정하였스리
나가리이다 나가 싸우리이다
싸워서 이기리이다
미영을 격퇴하고 도라오리이다
조국의 흥망이 달린 이 결전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루판
단판일세 다시 해볼 수 없는 끗판
그대가 나가서 막을 마루판 싸움
(후략)

– 《매일신보》, 1943년 11월 5일

※ 香山光郎 : 이광수가 창씨개명한 이름

1943년~1945년 사이에 '지원병' '학도병' '징병'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징집된 한인청년의 수는 209,279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중국전선에 배치된 학도병 일부는 과감히 탈출하여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며 6,000리 멀어진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1945년 1월 31일 드디어 학도병은 중경 임시정부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났다.

김구 선생의 환영사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식에 아주 감감합니다. 그동안 일제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모두 일본인이 된 줄 알고 염려했더니, 그것이 한낱 나의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왜놈들에게 항거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탈출해서 이곳까지 찾아 와주었으니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착잡하고 헛된 고민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숭엄한 조국의 혼이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한국사람은 한국사람 이외에 아무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산 증거로서 여러분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은 한국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본사람이 되고자 원할 뿐만 아니라 다되었다고 선전하고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한국말조차도 할 줄 모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은 이곳에 와 있는 전세계 신문기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 산 증거를 알려주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경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진정 나의 이 가슴은 터질 것만 같고 이 밤중에라도 여러분을 끌고 이 중경 거리를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훌륭한 실증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국의 혼입니다.

학도병 대표 장준하의 답사

저희들은 왜놈들의 통치 아래서 태어났고, 또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기조차 본 일이 없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일장기를 보았지만 무심하였던 것입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저것은 우리나라 기가 아니고 일본국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국기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 일군에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되고 고국에 남긴 가족들이 폭정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우리들 자신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며, 왜 왜놈 상관에게 경례를 붙여야 하며, 왜 나의 조국은 사라졌는가 하는 분노가 용암으로 꿇어 화산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임시정부 청사에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안으로 울음을 삼켜가며 눌렀던 감격, 그것 때문에 우리는 6천 리를 걸어 왔습니다. … 아까 총사령관께서 사열을 받으실 때, 전 정성을 기울여 차렷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왜놈상관 앞에 차렷을 강요하던 그 모든 힘을 한데 묶어 아니 그 몇 십배로 늘려 차렷을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울었습니다. 아! 우리도 우리의 상관 앞에 참다운 사열을 받고 있구나. 주석 김구 선생님 앞에 선 때엔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조국의 이미지와 우리의 지휘관과 우리가 몸바칠 곳을 찾았다는 기쁨 속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무런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선배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를 가리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할 각오를 답사로 드리는 바입니다.